

참 지도자로서 한알의 밀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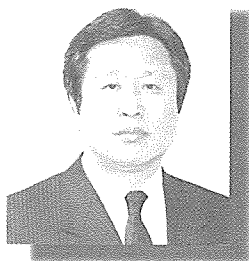
박 철 동 · 한국건강관리협회 감사실장

세상은 어떠한 일에서든지 좋은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요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 TV 등에서는 운동 대통령(지도자)이 되어 보겠다는 대선후보자(국가의 지도자)들에 관한 보도가 한창이다.

또 어느 군소 정당이나 회사, 단체까지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고, 리더십이 있고……. 물론 이런 조건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올바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자세에 대하여 몇가지 열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진실(眞實)의 추구(追求). 진실이 없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좋은 지도자란 있을 수 없다. 정직한 자, 진실



한 자 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신체는 불구지만 정신(精神)이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사람은 결코 불구라고 말할 수 없다. 그에게 갖든 소망이 육체의 불구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肉體)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서는 희망의 싹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사람이 말로 절반은 죽어 있는 사람, 진짜 불구인 것이다.

요즘은 우리의 세태를 한 번 보자.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모두 남의 핑계를 댄다. 잘 되면 내 탓, 안되면 네 탓…….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은 따 먹되 선악과(善惡果)만은 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이

선악과를 따 먹은 아담의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은 책임을 하와에게로 돌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여자(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나는 하나님께 여자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결혼 따위는 고려해본 적도 없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여자를 만들어 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니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하와는 또 어떨까? 하와 또한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생긴 문제이지 내 탓이 아니라는 식이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좋은 지도자의 자리는 진실한 자, 정직한 자만의 몫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物質)은 모두 녹일 수 있다. 용광로에 넣으면 (섭씨 1,000℃~2,000℃) 무쇠도 녹일 수 있고, 용광로로 녹일 수 없는 것은 태양(太陽)으로도 녹일 수 있다. 그러나 용광로나 태양으로도 녹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人間)의 마음이다.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녹일 수 없다.

그러면 진정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진실(眞實) 뿐이다. 진실이 있으면 무엇이든 통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말과 행동의 일치(一致)를 보이지 못하는 지도자가 많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 그동안 너무 많은 위선자들을 보아 왔으므로 - 충분히 알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진실(眞實)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진실된 자, 정직한 자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바람직한 지도자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 불완전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내 경험이나 지식, 생각만이 정도(正道)라는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는 말들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겠다.

“충고는 좀처럼 환영받지 못한다. 특히 충고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나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라고 『체스터필드』가 말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아무리 겸손하다 해도 인간은 그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교만(驕慢) 때문에 충고받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人間)은 없을진데, 그 앞에서

조차 교만하여 경고(忠告)를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끊임없이 계시하시며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 실수와 허물과 죄(罪)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주님께서 말씀(성경)을 통해서, 또 인간 자신의 내부 은밀한 곳에서 들려지는 양심(良心)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예상치 못했던 천재지변(기근·지진·홍수·화산폭발……) 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忠告)의 말씀을 해 주신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부자(富者)라고, 권세(權勢)가 있다고, 명예(名譽)가 있다고, 지위(地位)가 높다고 행복(幸福)한 것은 아니다. 행복(幸福)은 소유(所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느니라.”

그렇다. 자기 자신의 실수, 허물, 잘못과 어리석음, 또한 자신의 죄(罪)를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0)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인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에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는가?

셋째,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는 자만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성경 신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代贖物)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6 ~ 28) 라고 기록되어 있다.

거듭되는 예수의 수난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弟子)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차지하게 될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 여전히 압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自己) 목숨까지 내어 주셨다.

이렇듯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넷째, 바람직한 지도자는 욕심(탐욕)이 없어야 한다.

욕심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선(善)한 욕심과 악(惡)한 욕심이다. 선(善)한 욕심이라 함은 끊임없이 학문을 닦고 연구하여 인류에 공헌하고자 하는 진리탐구욕(眞理探究慾)이나, 어떤 일인든 목적인 바대로 이루기 위해서 일로매진(一路邁進) 하는 성취욕(成就慾) 등이 그것이다.

악(惡)한 욕심은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그것인데 모든 죄악이 사실상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욕심이란 지극히 불순한 욕망이 타락한 옛 성품을 작용시켜 육체로 표출한 것

이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늘 사람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욕심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는 평안(平安)이라는 단어(單語)조차도 생소할 것이다.

평안이란 부족함을 모를 때 누릴 수 있는 마음이다. 가령 사회적으로 남이 알아 줄 만큼의 부(副)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 지위, 이런 것들에 늘 부족함을 느낀다면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는가! 그는 필경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 염려하는 마음 또한 클 것이다.

빼앗길까 하는 염려,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고민들……. 그래서 걱정, 걱정, 또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평안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를 잃게 되어 죄를 짓게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욕심으로 인한 범죄로 파멸된 개인, 회사, 국가들이 많이 있었다. 가까운 예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전(前) 국가원수들의 사건을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4 ~15)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고 시련에 빠지게 됨의 원천(源泉)은 결국 욕심(물욕, 명예욕, 권력욕 등)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욕심은 버려야

겠다.

끝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명 장군 아래 명 부하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훌륭한 지도자는 결코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다. 곁에서 보좌해 주는 이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지도자의 의미를 굳이 사회나 국가적으로 크게만 볼 것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을 예로 들어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또한 지도자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간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겠는가?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여 일일이 간섭하고 확인하려 한다면, 또는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너는 왜 그 모양이 니?”,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나는 그맘 때 안 그랬다.”, “염 집 누구는 어떻다더라.”

이런 식으로 채근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그 아이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부모에게 실망하여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갖게 될 것이며, 그 상처가 원망과 미움으로 변하여 종래는 탈선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 그대로 의심없이 믿어주고 또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도,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란다”, “다음 기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더구나”.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고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준

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믿음과 사랑을 밑거름으로 하여 튼튼한 거목(巨木)으로 자라나 알차고 아무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둘 중 어느 부모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인지는 실로 자명하다. 어떤 일을 지시한 후 후시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하여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믿고 묵묵히 뒤에서 관전하며 격려해 주는, 그런 지도자 아래서 만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한층 더 분발할 힘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지도자가 지…….

우리는 그저 이름만 걸고 앉아 있는, 그런 안일한 지도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앞에 니열했던 그 모든 자질들을 다 갖출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자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 생각지 못한 죄(罪)를 범할 수도, 본의 아니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잘못과 실수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겸허(謙虛)히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자신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좋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그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모두 “올바른 지도자”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각자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진정 이 사회가 요구하는 『참 지도자』로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보자. 72